

‘일방통행’ 한수원 공청회 무산...한빛원전 수명연장 ‘험난’

‘주민 동의 없는’ 1·2호기 10년 수명 연장 주민 공청회 파행

환경단체 “중대 사고 대책 없는 환경평가서 초안 엉터리” 한빛 1·2호기 2025년·2026년 각각 40년 설계수명 단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절차인 주민공청회가 영광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엉터리 초안’을 제출하고 일방통행식 의견수렴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해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영광군도 주민공청회 개최시기를 타 지자체가 모두 주민공청회를 마친 뒤로 미룰것을 약속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전 가동중지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영광 주민공청회 무산=지난 12일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행사 시작 30분전 공청회장에 들어가 “주민 동의 없는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전문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자 10분만에 한수원 측은 “사업자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인 이유로 공청회가 무산됐으며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미국에서는 원전 수명연장 사례가 60건이 넘고 미국은 20년인 반면 한국은 10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반약 미국 기준에 비해

열등한 부분이 있다면 따져봐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의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묻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체육관 앞에서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촉이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도 누락돼 있다”며 “노후되고 사고가 잦은 원전을 10년이나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되지 않았다”고 ‘엉터리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도 주민들과 협의해 공청회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내용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명연장 ‘산 넘어 산’=영광 주민공청회 무산으로 한빛 1·2호기의 결국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공청회 무산 이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이 영광군을 항의방문해 군으로부터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 부안, 함평, 장성, 무안, 고창) 중 영광 주민 공청회를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하기로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난 12일 영광군 영광읍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선 함평의 소순이 마무리 돼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광 지역 공청회 개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절차상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부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가 개시돼 중단없이 계속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미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한수원이 공개한 주민공감 초안과 관련, 최신 원전 신기술과 중대사고 미적용 등의 핵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주민공감 절차도 지자체가 수정을 요청하며 시일이 오래 걸렸다.

통상 원전 수명연장 운전에 필요한 최소기간은 3년 6개월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원전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까지 약 6개월, 주기적인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공감 및 의견수렴에 6개월, 규제당국의 PSR 심사에 1년 6개월,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과 설비개선예약 1년이 각각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감 의견수렴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1호기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설계수명 40년 도래)를 앞두고 있어 결국 운영이 중단된 이후 수명연장 절차가 진행되고 다시 가동을 해야한다는 소린다.

한편 주민공청회는 15일 고창을 시작으로 17일 부안, 19일 함평, 22일 무안, 23일 장성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부안군은 한수원에 공문을 통해 연 기요청을 한 상태다.

/영광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전남 ‘오락가락’ 장맛비에 한증막 더위

오늘까지 20~80mm 내린 후 소강...16일부터 다시 비 뿌려

중부지역에 물폭탄을 내린뒤 제주도까지 내려간 장마전선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5일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인다 다시 16일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14일 예보했다.

일단 15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과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남하했던 장마전선이 해수면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다시 머금어 짧은 시간에 많은 비(시간당 30mm)

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기상청은 14일 오전 완도와 해남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고, 14일 밤을 기해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에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후 15일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동해쪽으로 다소 이동해 광주·전남의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광주·전남에 10~40mm의 비가 오겠다. 전남 해안가에는 20~6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6~31도까지 오르겠으며, 16일 역시 27~31도에 분포하겠다. 특히 장맛비로 인해 대기에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유병언 장남 11억 세금 적법

대법 “세무당국 조치 정당” 판결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3)씨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 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세무당국은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지난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도 챔스필드서 생생한 야구 즐겨요

이달부터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생생한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현장 관람객 대상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

구축에 나섰으며 이달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서울 잠실야구장, 부산 사직야구장 3개 구장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시각장애인은 경기장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단말기는 전용 유선 번호(1666-0720)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경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초교 학생 25명 집단 식중독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시 동구보건소는 지난 11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2일까지 초등학교생 24명, 유치원생 1명 등 총 25명이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보건소는 동의 절차를 거쳐 학생 14명과 조리원 등 종사자 10명을 포함한 총 24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역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에는 일주일 이 걸릴 예정이다.

동구보건소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시교육청과 함께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